

<서평>

조성남 지음, 『에이지봄 시대: 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도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373쪽.

사회학자가 바라본 고령화 사회

-예비 노인을 위한 지침서-

송 유 진*

I. 21세기 한국 사회의 과제

21세기 한국 사회는 두 가지 인구학적 현상을 당면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현상은 인구학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한국은 2003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8.3%를 차지함으로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통계청, 2004), 세계 각국과 비교하여 고령화 속도가 유래 없이 빠르다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고령화 현상은 사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고령화 현상이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은 물론,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현재의 젊은이들이 노년기에 진입했을 때의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어 있으며 어떤 문제에 당면할 것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적 사회적으로 어떤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개개인이 노년기에 겪게 될 다양한 측면의 변화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모든 예비 노인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다가올 노년기의 변화를 이해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나치게 학문적이거나 거시적인 관점에만 편중되지 않고 일반인들도 쉽게 접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제와 자료, 인용 등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인 고령화 현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함

* 브라운대학 사회학박사. 현재 한양대학교 강사

계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노인 문제나 고령화 관련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측면을 소개하는 기본 교과서로 활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II. 고령화 사회의 12가지 단면들

이 책은 ‘누구에게나 노년기는 공평하게 다가온다’는 말로 시작한다. 이는 현재 활발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한 논의들을 자칫하면 남의 일처럼 지나치기 쉬운 젊은 세대들, 즉 ‘예비 노인’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현재의 ‘예비 노인’들이 앞으로 다가올 노년기와 고령화 사회의 전반적인 특징과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2장에서는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와 노인층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제시한다. 저자는 제시된 자료에 근거하여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는 부양 의식의 약화를 나타낸다는 것과, 교육 수준과 경제적인 상황에 있어서 도시 노인과 농촌 노인 간의 차이, 그리고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노인층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인식하지 않고 노인층 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노인 관련 연구나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3장에서는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이슈를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특히 뒷부분에서는 여성 노인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고령 인구 중 여성 인구의 비율이 더 높은 점과 배우자 사망 이후 혼자 사는 여성 노인 인구가 많은 점, 여성 노인의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과 경제력 등을 근거로 여성 노인의 문제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인 관심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점이 의미가 있다.

4장에서는 과거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 것이며 앞으로 노인의 이미지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저자는 기존의 노인의 이미지가 다소 부정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성공적 노화’ 또는 ‘건강한 노화’를 추구하는 긍정적인 노인의 이미지를 확립할 것을 주장한다. 5장에서는 ‘성공적 노화’ 또는 ‘건강한 노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화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전제한다. 따라서 노화의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 관한 이론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6장부터 10장까지는 노년기 다양한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며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어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6장에서는 노년기의 가족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노인 부양 실태부터 노년기의 부모 자녀 관계와 손자녀와의 관계, 노년기의 부부 관계와 역할 분담, 그리고 노인의 성과 재혼, 노인의 인권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이슈를 소개한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노년기의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위하여 부부간 가사 분담을 수행할 것과 조부모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7장에서는 노년기의 건강을 중심으로 노인성 질환과 노인의 건강 보호, 만성 질환 노인의 부양 문제 등을 소개하고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제언을 한다. 특히 농촌 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을 독립적으로 다룸으로써 복지 서비스의 다양화와 차별화를 논의하는 것이 눈에 띈다. 또한 중간 중간에 치매 예방법과 장수 비법 등이 제시되는 점이 흥미롭다. 8장에서는 최근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는 이슈인 노년기의 경제 문제를 다룬다. 저자는 이 장에서 노인의 빈곤, 노인의 경제활동과 재취업,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연금 문제 등을 소개하며 국가·사회·개인적 측면의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9장에서는 노년기 여가 활동과 자원 봉사 활동, 정보화 교육 등의 실태를 분석하고, 노인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들의 활발한 사회 참여 활동이 장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0장의 경우는 노년기의 주거 환경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량이 짧고 이미 다른 장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아서 독립된 장으로 다루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11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정책이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도입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례가 있는지를 논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 장에서는 다소 생소한 노인의 시민권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다. 노인 시민권의 의미와 역사, 우리나라의 노인 시민권 운동 등을 소개함으로써 미래 사회에서 노인들이 주체적으로 권리를 추구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III. 세대간 공존하는 밝은 미래를 위하여

이 책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를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예비 노인' 세대들을 겨냥하여 노년기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강조하는 것이 참신하다. 노년기의 다양한 문제와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과 사회적 측면의 노력 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의 준비와 노력 역시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년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준비에 대한 연구나 프로그램 등은 부족한 현실이기에, 저자의 주장은 시의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다양한 예제와 사진, 표, 신문 기사 등을 활용하여 고령화 사회의 다면적인 이슈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한 것도 이 책의 큰 장점이다. 따라서 '예비 노인' 세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 사회를 이해하고 개인의 노년기를 준비하는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 노인에 대한 저자의 관심 또한 다른 책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노인 복지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에 있어서 노인 층 내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저소득층 노인과 농촌 노인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노인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 책에서 여성 노인에 관련된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기는 하지만, 여성 노인에 대해 언급하고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

또한 마지막 장에서 간략히 다루어진 노인 시민권에 대한 언급도 참신하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으로써 노인들의 권리 찾기와 노인층의 권력 집단으로의 등장이 불가피함을 생각할 때, 노인 운동과 시민권은 사회학적으로 연구할 만한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된다. 이렇듯 이 책은 저자의 사회학적 성찰에 근거한 문제 제기와 논의는 물론,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사회학자들이 연구해야 할 이슈들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저자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세대간의 공존과 조화'이다. 요즘 흔히 대두되는 '세대간의 갈등'은 상호간의 이해 부족과 의사소통 부족의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는 세대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조화롭게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언을 한다. 예를 들면 조부모 역할이나 사회 참여, 봉사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노인들 스스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 인지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자로 거듭날 것을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예비 노인’들의 경우는 노년기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실천함으로써 노인 세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복지의 수혜자인 수동적인 노인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인 노인의 이미지를 확립할 것을 제안한다.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상호 공존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점에서도 이 책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김두섭, 박상태, 은기수 편(2002), 《한국의 인구 1, 2》, 서울: 통계청.
박경숙(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서울: 의암출판사.
통계청(2004), 한국통계정보시스템 www.kosis.go.kr (통계청 웹사이트).